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성인진입기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에 미치는 영향: 불안정 성인애착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김 태 연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석사

남 지 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조교수

본 연구에서는 성인진입기 청년들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의 관계에서 불안정 성인 애착(불안애착, 회피애착)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만 18세-25세의 성인남녀 388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Mplus 8.6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불안정 성인애착, 내면화된 수치심과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의 관계에서 불안정 성인애착(불안애착, 회피애착)과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 한 경로를 검증한 결과, 회피애착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으로 가는 경로가 부적으로 유의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의 관계에서 불안애착의 단순매개효과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단순매개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하였고, 회피애착의 단순매개효과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의 관계에서 불안애착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이중매개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하고, 회피애착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이중매개효과가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아동기 정서적 외상, 회피애착, 불안애착, 내면화된 수치심,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

* 본 연구는 김태연(2021)의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성인진입기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에 미치는 영향: 불안정 성인애착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3A2A02103411).

† 교신저자 : 남지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ECC B109호, Tel: 02-3277-3340, E-mail: jkarin@ewha.ac.kr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s)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 성인기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사고, 행동, 상호작용패턴이 병리적인 경우를 말한다(권석만, 2013). 그 중에서 경계선 성격장애는 대체로 내적 자기상이 불안정하고, 정서가 안정적이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허함과 외로움을 자주 느끼고(Zeigler - Hill & Abraham, 2006), 버림받을 것에 대한 불안을 느껴 필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는 경향을 보인다(오남경, 2017). 이들은 매우 심한 감정 기복과 정서조절에서의 어려움을 겪으며(Henry et al., 2001; Skodol et al., 2002). 강렬한 분노에 사로잡혀 적대적으로 세상을 지각하는 비율이 일반인들보다 높다(Barnow et al., 2009). 또한, 자해와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이 다른 성격장애보다 높아 8%에서 10%에 이르며, 이는 일반 비임상군에 비해 50배나 높은 수치이다(Temes, Frankenburg, Fitzmaurice & Zanarini, 2019). 결과적으로,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고통감을 호소하지만, 치료자들은 이들을 치료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본다(Gabbard & Wilkinson, 1994/2020). 이에 경계선 성격장애의 형성원인이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최중현 & 박중규, 2015; Barnow et al., 2009).

최근에는 성격장애에 대한 차원적 접근이 대두되어, 정상적 성격과 성격장애에서의 성격을 연속선상에서 보게 되면서, 장애의 진단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성격장애로 발전할 수 있는 단계 또는 성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홍상환 & 김영환, 1998).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해행동이나 자살행동을 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우울과 불안

을 경험하고 대인관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며,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특징을 갖는다(홍상환 & 김영환, 199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비임상군 집단 중 성인진입기의 사람들에게 주목하였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나이에 따라 증상의 심각도나 경과에 있어 차이가 나게 되는데, 대부분 후기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에 자살행동을 비롯한 핵심 증상들이 가장 심해진다(Broadbear, Dwyer, Bugeja & Rao, 2020). Arnett(2000)은 18세 이후지만,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탐험하며 정체성이 완성되지 않은(Roberts, Walton & Viechtbauer, 2006) 불안정한 시기를 성인진입기라고 하였고, 만 18세부터 만 25세의 사람들이 이 시기에 속한다고 하였다. 이 나이의 사람들은 정체성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다른 시기보다 정서적으로 더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경향이 있고, 이러한 불안정성은 경계선 성격장애의 증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Linehan(1993)의 생물사회화학적인 입장에서는 개인의 유전적인 소인과 비타당화 환경의 상호작용 결과로 경계선 성격장애가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Hughes, Crowell, Uyeji과 Coan(2012)은 경계선 성격장애의 형성과정을 발달모델(BDM: Biosocial Development Model)의 맥락에서 설명하면서, 아동의 정서조절의 결여로 인해 양육자들이 역기능적인 양육태도를 취하게 되고, 이러한 환경이 다시 아동의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순환적인 모습이 지속되었을 때 이후에 경계선 성격장애가 나타나기 쉽다고 보았다(Hallquist, Hipwell & Stepp, 2015). 또한, Coan의 사회적 기준선 이론(SBT: Social Baseline Theory)에서는 사회적인 지지체계의 도움을 못 받는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는 후에 전두엽의 역기능과 정서조절이 어려워지게 된다고 하였는데 (Winsper, 2018), 이러한 환경을 비타당화 환경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즉, 사회적 지지체계의 도움을 못 받는 환경은 긍정적인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양육자의 역기능적인 환경과 비슷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Hughes et al., 2012). 아동에게 긍정적인 정서적 조율 경험의 기회를 주지 못하고, 애착체계에 혼란을 주게 되는 대표적인 비타당화 환경은 아동기 외상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외상적인 환경에는 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성적 학대 등이 있으며(Bernstein et al., 2003), 그 중에서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은 정서적인 외상에 속한다. 가시적인 신체적 방임과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보다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정서적인 학대와 정서적인 방임은 상대적으로 정의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결과에 있어서도 증거가 남지 않아 관련 연구가 진행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이세원, 2019). 그렇지만 여러 선행 연구들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정서적인 외상이 빈번해지면 경계선 성격장애를 심화시키게 된다고 밝힌 바 있어(최정문 & 정남운, 2020; Frias, Palma, Farriols, Gonzalez & Horta, 2016; Jeremy et al., 2017), 비록 정서적인 학대와 정서적인 방임에 대한 연구가 쉽지 않았지만,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정서적인 외상의 발생비율을 보면 정서학대는 7,622건으로 집계되어 아동학대 유형 중 가장 높은 30.0%를 차지하고 있고, 정서학대를 포함한 중복학대도 48.8%로 높게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9). 게다가 가해자의 유형이 부모인 경우가 정서학대의 경우에는 78.1%, 방임 사례에서는 80%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

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곳이며 심리장애에 대한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곳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아동이 가정에서 정서적 외상을 겪게 되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어 아동의 애착체계의 붕괴가 초래된다(최정문 & 정남운, 2020; Frias et al., 2016). 외상 피해아동은 양육자로부터 위안은커녕 양육자와 같이 있을 때 각성반응을 느끼면서(박혜주, 이순행, 최해훈 & 방희정, 2005) 양육자와 가까워지고 싶지만 외상에 관한 기억으로 가까워짐에 두려움을 느낀다. 감정표현에 있어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어른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정적인 행동에 대해 처벌을 받는 환경에서 자라게 되는 아동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우울이나 불안(Karolinsky, 2019), 분노(이지영 & 손정락, 2010)와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크게 느끼게 되어 정서조절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Dannlowski et al., 2013; Peng et al., 2021). 더 나아가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에서 불안정한 애착유형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Kim, Baek & Park, 2021), 이로 인해 지속적인 불안정한 자기정체감, 만성적인 공허감 등을 자주 느껴 경계선 성격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Agrawal, Gunderson, Holmes & Lyons-Ruth, 2004).

Hazan과 Shaver의 연구(1987)에서는 불안정 애착을 회피애착과 불안-양가애착의 두 가지 유형으로 보았다. 불안-양가애착은 부정적인 감정을 과잉활성화하면서 관계에 대해 집착하면서 불안해하는 유형이며 불안애착이라고도 하며, 회피애착은 부정적인 감정을 과소활성화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관계에 있어 거리를 두려고 하는 유형이다(Wallin, 2007/2010). 이후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은 관계에 있어 거리를 두는 회피형을 자신에 대한 표상이 긍정적인 무시형과 자신에 대한 표상이 부정적인 두려움형으로 나누었다. 애착을 어떻게 정의해야 그 속성이 잘 드러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Brennen, Clark과 Shaver의 연구(1998)에서는 범주보다는 차원의 개념이 애착의 속성을 더 잘 나타낸다고 보고 불안애착차원과 회피애착차원의 두 개의 축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나중에 정의되었던 두려움형은, 불안애착차원과 회피애착차원 둘 다 높은, 혼란애착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애착의 속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차원의 개념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두 가지 차원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두 개의 애착차원 모두 대인관계의 문제나, 사회불안(정재익 & 양난미, 2019)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공통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성인진입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신념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양육자와의 애착관계보다는 또래나 연인과 같은 상대적으로 수평적이고 상호적인 애착관계가 넓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 양육자와의 애착이 아닌 성인애착을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들은 경계선 성격장애와 불안애착의 높은 관련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Clarkin, Yeomans & Kernberg, 2006/2016),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애착형태는 대체로 두려워하면서도 집착하는 특성을 보이는 등 불안애착의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Beeney et al., 2017; Blatt & Levy, 2003; Clarkin et al., 2006/2016). 경계선 성격장애에서는 혼란애착의 모습도 나타나는데, 그 수치는 건강한 사람들의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

며(Holmes, 2004), 혼란애착 중에서도 불안애착의 특성을 많이 보이는 혼란애착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회피애착과 경계선 성격장애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되었지만 그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 Smith와 South(2020)의 연구에서는 불안애착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회피애착 또한 경계선 성격장애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애착의 정도가 높은 사람들은 타인들과 멀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유기불안으로 사람들에게 집착하려 하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핵심증상과는 상이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회피애착도 부적절한 분노와 통제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경계선 성격장애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Shaver와 Mikulincer의 연구(2003)와 Westen, Nakash, Thomas과 Bradley의 연구(2006)에서는 회피애착이 경계선 성격장애를 예측하지 않았다. 따라서 불안애착은 경계선 성격장애에 큰 영향 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지만, 회피애착이 경계선 성격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예상하기 어렵다.

경계선 성격장애에 있어서 애착의 차원에 따라 행동패턴, 내면적인 기제가 서로 다르다. 경계선 성격장애의 사람들 중 불안애착의 정도가 높은 사람들은 민감하면서도 의존적이며 집착하는 특성을 보였다(이아롱, 2013). Levy, Meehan, Weber, Reynoso와 Clarkin의 연구(2005)에서 이들은 가상의 유기에 대해 더 걱정하고 더 큰 행동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관계에 집착하는 양상을 보이면서도,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평가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해서 수치심이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uris et al., 2014). 반면, 경계선 성격장애의 사람들 중 회피애착의 정도가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지배적이면서 통제적인 면을 보이거나(이아롱,

2013), 때때로 부적절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Levy et al., 2005). 이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 민감하게 발달하게 되는 감정인 수치심을 방어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경계선 성격장애에 있어 애착의 차원에 따라 내면적인 기제인 내면화된 수치심의 수준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여,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에 주목하였다

양육자와의 애착관계에서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양육자가 나쁘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을 하찮게 취급한 양육자처럼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자신에 대한 시각은 수치심으로 발전하게 된다(이인숙 & 최해림, 2005; 이정아 & 박경, 2019). 수치심과 같이 부정적인 정서와 이에 수반된 불안감은 자기비난(Lutwak, Panish & Ferrari, 2003)이나, 공격성,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 및 외로움(Cook, 1988), 공허함(Miller, Townsend, Day & Grenyer, 2020), 자해, 자살사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Cameron, Erisman & Palm Reed, 2021), 수치심을 빈번하게 느꼈던 사람들은 경계선 성격장애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Bach & Farrell, 2018; Rüsch et al., 2007).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은 초기 주요 양육자와의 관계경험을 통해 생겨나지만 성인애착 또한 계속해

서 수치심의 내면화 과정에 기여를 하게 된다. 실제로 성인애착과 수치심의 연관성을 연구한 연구들은 성인애착을 선행변인으로 두었고, 특히 불안정애착이 수치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이재필 & 최가희, 2022; 허인아 & 이민규, 2017; 황지선 & 안명희, 2015). 따라서 아동기 정서적 외상에서 경계선 성격성향으로 가는 경로에서, 회피애착과 수치심, 불안애착과 수치심은 순차매개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아동기 정서적 외상으로 인해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안전감보다는 부정적인 내적작동모형을 활성화하게 된 아동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형성하게 되면서 경계선 성격장애의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성인애착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애착의 차원에 따라 수치심의 수준이 다르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경계선 성격장애에 끼치는 영향 또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정서적 외상을 겪어 불안정한 애착유형을 보이는 성인진입기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애착양상이 내면화된 수치심과 어떻게 함께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구조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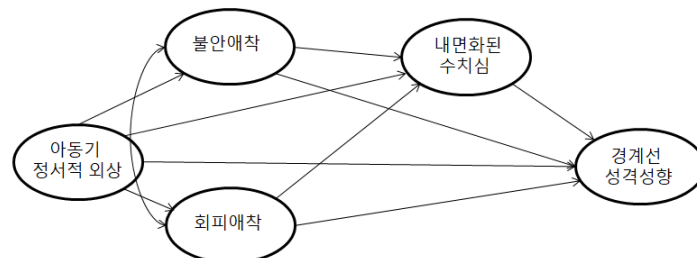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기 정서적 외상, 회피애착, 불안애착, 내면화된 수치심,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회피애착, 불안애착, 내면화된 수치심에 의해 각각 매개되는가?
3.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회피애착과 내면화된 수치심, 불안애착과 내면화된 수치심에 의해 각각 순차적으로 매개되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2021년 2월에 약 20일 간 인터넷 카페 게시글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만 18세에서 만 25세까지의 청년 222명이 본 설문에 응답하였다. 그 중 나이가 맞지 않는 47명을 제외한 175명의 설문지를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엠브레인 리서치 회사에서 만 18세에서 만 25세 성인을 대상으로 2월 16일부터 3일간 실시한 온라인 설문에 응한 213명의 설문지도 또한 분석에 사용되어, 모두 388부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변인에 있어서 모집 방법에 따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아동기 외상은 $p < .05$ 수준에서, 불안애착은 $p < .01$ 수준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경계선 성격성향은 $p < .001$ 수준에서 온라인 카페에서 설문에 응답한 사람이 엠브레인 리서치 회사를 통해서 설문에 응답한 사람보다 연구변인의 수치가 조금 높은 경향을 보였다. 회피애착의 경

우에는 두 집단에서 차이가 없었다. 모집방법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온라인 설문 참여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특정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더 끌어 모으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한 개 이상의 방법을 통해 설문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은 참여자의 다양성을 높이고 응답률을 높인다는 이점이 있어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Moraes et al., 2021).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변인에서 두 집단 간 차이를 보고하되, 두 집단의 자료를 합쳐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성별은 남자가 152명(39.2%), 여자가 236명(60.8%)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구대상의 평균연령은 22.38세였으며, 직업은 대학생이 244명(62.9%)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인이 58명(14.9%), 대학원생이 24명(10.8%)을 차지하였다.

측정 도구

아동기 정서적 외상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은 아동기 외상 질문지 단축형(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Short Form; CTQ-SF)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Bernstein, Fink, Handelsman와 Foote(1998)가 아동기의 외상을 측정하려고 70문항으로 타당화하고, 이후에 Bernstein과 그 외의 연구자들(2003)이 5분 이내로 학대의 역사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만든 것을 이유경(2006)이 번안, 수정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 신체적 학대와 신체적 방임, 성적 학대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5문항씩 총 25 문항이다. 이 척도의 한 문항 당 최대점수는 3점이며, 만 18세 이전에 가족이나 부모로부터

의 학대나 방임이 전혀 없었으면 0점, 빈도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져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나 방임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외상을 측정하기 위해 5개 하위요인 중 정서적 학대 5문항과 정서적 방임 5문항을 사용하였고, 정서적 방임문항은 모두 역채점하게 되어 있다. 척도를 번안하고 수정한 이유경(200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정서적 학대가 .76, 정서적 방임이 .91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2로 나타났다.

불안정 성인애착

본 연구에서 성인의 불안정 애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친밀 관계 경험검사개정판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Brennan과 그 외의 연구자들(1998)이 개발한 친밀관계 경험 검사(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s Questionnaire: ECR)를 Fraley, Waller와 Brennan(2000)이 개정하고, 김성현(2004)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이다. 본 척도는 '불안'과 '회피'의 2개의 하위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불안애착 18문항, 회피애착 18문항으로,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애착불안'은 관계에서 버림받거나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자신보다도 관계를 우선시하고 짐작하는 성향을, '애착회피'는 관계의 친밀함에 대해 불편해하며, 대인관계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꺼리는 성향을 나타내며,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애착이 불안정하게 형성되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을 각각 불안애착 3요인, 회피애착 3요인으로 문항

묶음을 구성하였다. 문항묶음은 다변량 정규성을 더 잘 만족시키도록 도와주어 상대적으로 표준편차가 작아지고, 공통분산의 크기가 늘어나게 되어 구조방정식의 추정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준다(김수영, 2016). 그 중에서 고유분산의 분배방법의 한 가지이며, 유사한 크기의 요인부하 값을 가져 안정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요인 알고리즘을 통하여 문항 묶음을 생성하였다. Brennan 등(198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의 경우 불안애착이 .91, 회피애착이 .94로 나타났고,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불안애착이 .93, 회피애착이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3으로 나타났다.

내면화된 수치심

본 연구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하여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Cook(1988)이 자기 보고식 질문지 형식으로 제작한 것을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번안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총 30문항이며, 부적절감 10문항(예: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결코 이상(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공허 5문항(예: 나의 외로움은 텅 빈 공허감과 같다), 자기차별 5문항(예: 때로 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 같을 때 땅이 열려 나를 삼켜버렸으면 싶다), 실수 불안 4문항(예: 다른 사람 앞에서 내 결점이 드러나는 것이 나는 아주 무섭다), 자존감 6문항(예: 나에게서는 자랑스러워 할 점이 많은 것 같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적절감, 공허, 자기차별, 실수 불안 등의 수치심을 측정하는 24문항과 자존감을 측정하는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그런 경우가 없다(1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는 국내에서는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지만, 원척도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인숙 & 최해림, 2005). 또한 척도를 개발한 이인숙과 최해림의 연구(2005)에서도 4개의 요인으로 구성함에 있어 부적절함에 너무나 많은 문항들이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척도의 요인구조를 보기 위해 실시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EFA)로도 4개가 아닌 3개의 요인이 추출되어 국내에서 검사를 개발한 4개의 요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지만, 아직 이 요인의 개수가 맞는지 여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추정의 안정성과 정확성, 측정변수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문항 묶음을 제작하였다(이지현 & 김수영, 2016). 이미 나하영과 신태섭의 연구(2016)에서도 이러한 제한점으로 인해 문항묶음을 제작한 바 있다. 이 연구의 목적도 검사 개발과 같이 개별 문항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변인들의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모형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추정을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문항묶음 수준에서 측정모형이 성립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Little, Rhemtulla, Gibsom & Schoemann, 2013; Matsunaga, 2008; 나하영 & 신태섭, 2016에서 재인용). 이 척도는 원척도가 단일요인으로 일차원성이 가정되기 때문에(Cook, 1988), 문항묶음 중 고유분산 분배전략을 사용하였다. 요인당 세 개나 네 개의 문항묶음이 적당하다고 하여(이지현 & 김수영, 2016) 네 개의 문항묶음을 생성하였다.

이인숙과 최해림(2005)의 연구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문항의 Cronbach's α 는 .93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 유형별로는 부적절감 .92, 공허감 .91, 자기차별 .79, 실수불안 .8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6으로 나타났다.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측정함에 있어, Morey(1991)가 개발한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 Borderline Features Scale:PAI-BOR)를 홍상황과 김영환(1998)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혀 아니다(0점)-매우 그렇다(3점)'으로 평정되며 전체 점수는 0점에서 69점까지로 나타나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정서적 불안정성 6문항, 정체성 문제 6문항, 부정적 관계 5문항, 자기손상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상황과 김영환의 타당화연구(1998)에서의 Cronbach's α 는 .84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1이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하여 통계프로그램인 SPSS Statistics 26.0과 Mplus 8.6을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를 구해 정규성을 확인하고, 연구변인들을 대상으로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에 대해 고유분산 분배방법을 통해 안정적으로 값을 추정가능한 요인 알고리즘으로 문항묶음을 제작하였다(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차례로 검증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고, 원자료로부터 무선표집하여 5,000회의 복원추출을 실시하여(Bollen & Stine, 1990)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자료의 정상성을 확인하여 정상 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하였다. 주요변인의 결과는 표 1에, 측정변인들의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연구변인들의 정규성 확인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 값이 -.15에서 1.04로 3보다 작고, 첨도 값은, -.81에서 .53으로 10을 넘지 않아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값은 정규성 가정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주요변인들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은 아동기 정서적 외상($r=.674, p<.001$), 불안애착($r=.824, p<.001$), 회피애착($r=.345, p<.001$), 내면화된 수치심($r=.868, p<.001$) 모두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정서적 외상은 불안애착($r=.537, p<.001$), 회피애착($r=.368, p<.001$), 내면화된 수치심($r=.668,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애착은 회피애착($r=.449, p<.001$), 내면화된 수치심($r=.795,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회피애착과 내면화된 수치심($r=.491, p<.001$)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방법인 χ^2 , CFI, SRMR, RMSEA를 보고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1. 주요변인 간 상관 및 기술통계 결과 (N=388)

	1	2	3	4	5
1. 아동기 정서적 외상	-				
2. 애착회피	0.368***	-			
3. 애착불안	0.537***	0.449***	-		
4. 내면화된 수치심	0.668***	0.491***	0.795***	-	
5.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	0.674***	0.345***	0.824***	0.868***	-
평균	8.11	68.59	62.19	57.32	27.38
표준편차	6.97	17.86	21.60	22.30	11.39
왜도	.77	.04	-.01	.51	.32
첨도	-.22	.23	-.71	-.54	-.53

*** $p<.001$

표 2. 측정변인 간 상관 및 기술통계 결과

	1-1	1-2	2-1	2-2	2-3	3-1	3-2	3-3	4-1	4-2	4-3	4-4	5-1	5-2	5-3	5-4
1-1. 학대	-															
1-2. 방임	.64 ^{***}	-														
2-1. 회피에착1	.20 ^{***}	.35 ^{***}	-													
2-2. 회피에착2	.26 ^{***}	.31 ^{***}	.77 ^{***}	-												
2-3. 회피에착3	.16 ^{***}	.30 ^{***}	.77 ^{***}	.55 ^{***}	-											
3-1. 불안에착1	.43 ^{***}	.40 ^{***}	.42 ^{***}	.43 ^{***}	.32 ^{***}	-										
3-2. 불안에착2	.43 ^{***}	.38 ^{***}	.35 ^{***}	.35 ^{***}	.25 ^{***}	.86 ^{***}	-									
3-3. 불안에착3	.39 ^{***}	.31 ^{***}	.24 ^{***}	.31 ^{***}	.10 ^{***}	.82 ^{***}	.82 ^{***}	-								
4-1. 수치심1	.52 ^{***}	.48 ^{***}	.36 ^{***}	.41 ^{***}	.22 ^{***}	.71 ^{***}	.65 ^{***}	.65 ^{***}	-							
4-2. 수치심2	.56 ^{***}	.46 ^{***}	.34 ^{***}	.44 ^{***}	.21 ^{***}	.68 ^{***}	.64 ^{***}	.60 ^{***}	.85 ^{***}	-						
4-3. 수치심3	.57 ^{***}	.48 ^{***}	.37 ^{***}	.42 ^{***}	.25 ^{***}	.74 ^{***}	.66 ^{***}	.65 ^{***}	.90 ^{***}	.88 ^{***}	-					
4-4. 수치심4	.47 ^{***}	.43 ^{***}	.39 ^{***}	.46 ^{***}	.26 ^{***}	.72 ^{***}	.67 ^{***}	.69 ^{***}	.89 ^{***}	.85 ^{***}	.86 ^{***}	-				
5-1. 정서적 불안정성	.48 ^{***}	.46 ^{***}	.28 ^{***}	.28 ^{***}	.23 ^{***}	.58 ^{***}	.56 ^{***}	.48 ^{***}	.61 ^{***}	.66 ^{***}	.65 ^{***}	.59 ^{***}	-			
5-2. 정체감문제	.41 ^{***}	.35 ^{***}	.27 ^{***}	.27 ^{***}	.12 ^{***}	.63 ^{***}	.62 ^{***}	.62 ^{***}	.68 ^{***}	.66 ^{***}	.65 ^{***}	.72 ^{***}	.64 ^{***}	-		
5-3. 부정적 관계	.48 ^{***}	.41 ^{***}	.21 ^{***}	.21 ^{***}	.14 ^{***}	.67 ^{***}	.65 ^{***}	.65 ^{***}	.63 ^{***}	.64 ^{***}	.65 ^{***}	.66 ^{***}	.63 ^{***}	.67 ^{***}	-	
5-4. 자기 손상	.46 ^{***}	.37 ^{***}	.16 ^{***}	.17 ^{***}	.15 ^{***}	.54 ^{***}	.51 ^{***}	.49 ^{***}	.60 ^{***}	.57 ^{***}	.62 ^{***}	.56 ^{***}	.58 ^{***}	.55 ^{***}	.60 ^{***}	-
평균	3.49	4.62	23.03	23.20	22.36	20.66	19.87	21.66	13.90	14.06	14.11	15.24	7.36	8.65	6.29	5.07
표준편차	3.48	4.21	6.35	7.24	6.45	7.74	7.57	7.60	5.60	6.03	5.68	6.17	3.54	3.54	2.93	3.53
왜도	1.04	.63	.12	-.01	.19	.03	.15	-.15	.62	.66	.64	.34	.29	.24	.29	.53
첨도	.37	-.58	.09	-.14	.27	-.64	-.52	-.81	-.34	-.38	-.31	-.76	.53	-.10	-.22	-.43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인	측정변인	B	β	S.E.
아동기 정서적 외상	학대	1.000	.846***	
	방임	1.085***	.758***	.100
회피애착	회피1	1.000	.822***	
	회피2	1.296***	.934***	.113
	회피3	0.721***	.583***	.046
불안애착	불안1	1.000	.941***	
	불안2	0.948***	.912***	.033
	불안3	0.921***	.882***	.031
내면화된 수치심	수치심1	1.000	.941***	
	수치심2	1.047***	.915***	.031
	수치심3	1.018***	.945***	.029
	수치심4	1.086***	.928***	.029
경계선 성격장애성향	정서적 불안정성	1.000	.773***	
	정체감문제	1.047***	.810***	.057
	부정적 관계 자기손상	1.058***	.823***	.062
		0.930***	.721***	.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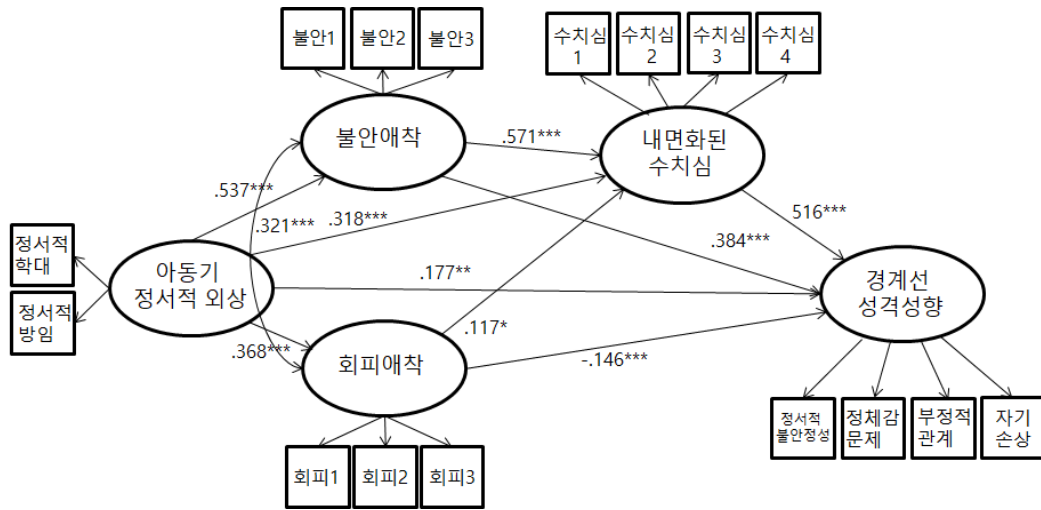
*** $p < .001$

(김수영, 2016). χ^2 검정이 표본크기가 클수록 영가설을 과도하게 기각하는 경향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다른 근사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CFI는 모형의 복잡해짐에 따라 주는 패널티가 충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CFI와 함께 TLI를 고려하였다(Kenny, 2014). CFI의 수치는 .95 이상이 되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하고, TLI는 0.90보다 높을 때 적합이라고 보며(Hu & Bentler, 1999), RMSEA 값은 0.05 이하는 매우 좋은 적합도, 0.05~0.08 정도라면 보통, 0.08~0.10은 좋지 않은 적합도에 속한다(Browne & Cudeck, 1993). SRMR은 0.05이하면 적합이라고 본다(Byrne,

2012). 적합도 수치에 근거하여 측정모형은 적절한 적합도를 보였다(CFI=.960, TLI=.948, RMSEA=.080(90% CI=.070~.090), SRMR=.036). 측정모형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50에서 .95 사이이면 적절하다고 보는데,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의 값들이 .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50에서 .95사이의 값을 나타내어 요인으로 적절하다고 보았다. 이 값들은 표 3에 제시하였다.

구조모형 검증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경계선 성격성향의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구조모형 검증 결과

표 4. 부트스트랩을 이용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경로	간접효과	95% C.I.	
		Lower	Upper
아동기 정서적외상 → 불안애착 → 경계선 성격성향	.207***	.100	.230
아동기 정서적외상 → 회피애착 → 경계선 성격성향	-.054**	-.081	-.015
아동기 정서적외상 → 내면화된 수치심 → 경계선 성격성향	.164***	.078	.185
아동기 정서적외상 → 회피애착 → 내면화된 수치심 → 경계선 성격성향	.158**	.005	.032
아동기 정서적외상 → 불안애착 → 내면화된 수치심 → 경계선 성격성향	.022***	.076	.179

** $p < .01$, *** $p < .001$

관계에 있어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내면화된 수치심의 구조적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검증하였다.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나타났다(CFI=.960, TLI=.948, RMSEA=.080 (90% CI=.070~.090), SRMR=.036). 구조모형에 대한 검증결과는 그림 2와 같이 나타났다.

구조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하여 388명의 원자료로부터 무선표집하여 5,000회의 복원추출을 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모형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표 4에 정리하였다. 검증 결과, 모든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

아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의 관계에서 불안애착, 회피애착, 내면화된 수치심의 단순매개효과, 불안애착과 내면화된 수치심을 거치는 이중매개효과, 회피애착과 내면화된 수치심을 거치는 이중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의 관계에서 불안애착, 회피애착, 내면화된 수치심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만 18세에서 만 25세 성인진입기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 불안애착, 회피애착, 내면화된 수치심,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회피애착보다는 불안애착이 내면화된 수치심과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과의 관계에서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정서적 외상이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에 끼치는 영향에 있어 회피애착, 불안애착, 내면화된 수치심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경로계수를 구해서 영향력을 확인하고, 매개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먼저, 경로계수를 보면, 아동기 정서적 외상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피애착이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경로들은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만, 회피애착이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부적으로 나타

난 것은 의외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을 동시에 투입하여, 상대적으로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과 관련이 큰 불안애착, 내면화된 수치심과의 경로에 있어 수치가 크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관련이 없는 회피애착과 경계선 성격장애성향 간 경로는 부적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회피애착을 가진 개인은 경계선 성격장애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것을 회피애착의 차원을 가진 사람들의 대인관계특성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신뢰감이 부족하고, 친밀한 관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어(고예주 & 이주영, 2021) 유기불안에 민감하지 않아 경계선 성격장애성향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불안애착은 경계선 성격장애에 더 큰 영향력을 보인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회피애착은 경계선 성격장애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이우경 & 최은실, 2013)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Crawford et al., 2006; Mohammadzadeh, 2013)들도 존재하여 비일관적인 양상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애착차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우선, 불안애착을 살펴보면,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의 관계에서 불안애착의 단순매개효과와 불안애착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이중매개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아동기 정서적 외상으로 불안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으로 발전하거나, 내면화된 수치심을 형성하여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나타내면서, 불안애착과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 사

이에 높은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회피애착의 경우는 다르게 나타났다.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의 관계에서 회피애착의 단순매개효과는 부적으로 유의하였지만, 회피애착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이중매개효과는 정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회피애착이 형성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으로 발전하기는 어렵지만, 내면화된 수치심이 형성되어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해진 사람들은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으로 발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Scott, Levy와 Pincus의 연구(2009)에서도, 경계선 성격장애와 애착불안과 관련성이 매우 높지만, 회피애착이 형성된 사람들은 불안애착의 속성을 지닐 때에만 경계선 성격장애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온 회피애착에 대해 좀 더 논의해보자면,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회피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고, 두려운 마음이 크며, 내면화된 수치심을 다소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애착의 차원에 근거한 내면적인 기제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은 회피애착을 형성한 사람들 중에서도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고 혼란애착 차원에 가까이 있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회피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내면에는 관계에 대한 불안이 있는 회피애착유형일 수 있다. 달리 풀어본다면, 회피애착의 개인들에 있어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는 내면화된 수치심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내면화된 수치심은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의 회피애착 차원의 내면적인 기제로 보이며, 추후에 관련 연구가 더욱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되면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의 집단에 있어 애착으로 인해서 다른 특성에 대한 더 심층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정서적 외상으로 인해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개입 방안을 고안해 볼 수 있다. 정서적 외상으로 인해 불안애착을 형성한 개인들 중 같은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구별되는 속성으로 인해 애착의 차원에 따라 개입의 방향성을 달리 하는 것이, 치료적 개입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서적 외상으로 인해 불안애착을 형성하여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기불안이 심하여 관계에 집착하며, 해로운 관계라도 이어나가려는 경향을 보인다(Scott et al., 2009). 이들은 강한 분노를 느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분노나 적개심을 억누르다가 화와 짜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커지면서(Critchfield, Levy, Clarkin & Kernberg, 2008). 정서조절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이러한 자신에 대해 무가치하며 열등하고, 중요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여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람들은 내재적인 문제들과 함께 대인관계에서 유기불안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니(Scott et al., 2009), 그 점을 유념해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서적 외상으로 인해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 회피애착의 차원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평가에 민감해하는 자의식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어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자신의 공격성이나 분노를 여과 없이 표현하거나, 상대를 비난하고 통제하는 행동을 보이면서도(이아룡, 2013), 그러한 자신에

대해서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 관계에 있어 회피적인 애착형태를 지니고 있는 개인들은 적대감을 자해로 표현하는 경향도 있다(Critchfield et al., 2008).

정서적 외상으로 인해 회피애착이든 불안애착이든 애착의 차원과 관계없이 내면화된 수치심이 형성되어 있으면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수치심을 다루어 나가는 것은 상담실제에서 정서적 외상을 겪은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개인들을 치료하는 데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은 치료 장면에서 자신이 자랑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부적절하게 여길 가능성이 높다(김수빈, 2019). 치료자들은 이러한 내담자들에게 수치심을 자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공감과 이해를 충분히 해주면서도, 자신의 수치심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들은 정서적 외상으로 인해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친밀함에 대한 욕구, 부드러움에 대한 욕구 등도 수치스럽게 여기며 자신의 욕구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Clarkin et al., 2006/2016). 그러나 결국 이들이 자신의 욕구를 회피하면 할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한 조종이나, 분노, 자살위협 행동 등과 같은 역기능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되면서, 상담의 진전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치료자들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정서적 외상만으로도 그 영향력이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경계선 성격장애

의 발달에 있어 드러나지 않는 정서적 외상의 영향력과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시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드러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정에서의 정서적인 영향력은 지속적이고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가정에서 양육자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의 정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의 관계에 있어 불안정 성인애착만을 매개변인으로 보거나, 내면화된 수치심만을 매개변인으로 본 연구들을 통해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있어 불안정 성인애착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영향력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에 있어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서로 다른 영향력, 그리고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변인으로 하였을 때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과의 관련성이 달라짐을 다시 확인하여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의 내면적인 기제를 파악하고, 관련된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서로 수치심이나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다르다. 또한 회피애착은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으로 직접적으로 발전되기 보다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거쳐야지만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아, 내면화된 수치심이 아닌 다른 변인들과의 관련성에도 차별점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추후에는 회피애착과 불안

애착이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다른 변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이라는 비임상군에 대해서 연구하였지만,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고, 정서적 외상이 적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에 있어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추후에는 정서적 외상이 높은 집단이나,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이 잘 나타나는 대상을 더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보는 작업도 의미있을 것이다.

셋째, 이번 연구에서는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의 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내면적인 기제를 알아보는 작업에 집중하면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두 가지 차원이 모두 높은 혼란애착은 어떤 기제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추후에 혼란애착을 포함하여 내면적인 기제를 알아보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의 애착에 대한 연구가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예주, 이주영 (2021). 성인애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마음챙김과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28(1), 97-116.

권석만 (2013). *현대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장적 요인분석과 문항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수빈 (2019). *성인진입기 청년들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의 관계에서 내면*

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2nd ed.). 서울: 학지사.

나하영, 신태섭 (2016).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제시 동기-기대 차이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3), 695-717.

박혜주, 이순행, 최해훈, 방희정 (2005). *낮선 상황에서 영아들의 애착과 정서조절 간의 관련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2), 23-28.

보건복지부 · 중앙아동복지전문기관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오남경 (2017). *유기불안, 미성숙한 방어기제, 그리고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24(1), 17-28

이세원 (2019). *정서학대와 신체학대의 법적 정의와 관계에 대한 연구-우리나라 정서학대에 대한 최초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10(1), 65-95.

이아롱 (2013). *대인관계패턴에 따른 경계선 성격의 하위유형별 발달 및 인지, 정서 특성 비교*.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우경, 최은실 (2013). *아동기 외상 경험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 애착 불안정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2), 413-430.

이유경 (2006). *여대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심리적 증상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 (ISS)의 타당화 연구-애착, 과민성 자기애,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70.
- 이재필, 최가희 (2022). 대학생의 불안정 성인 애착과 전위공격성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4(1), 63-86.
- 이정아, 박 경 (2019). 대인간 외상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수치심, 경험회피와 PTSD 증상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6(2), 75-99.
- 이지영, 손정락 (2010).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간 관계에서 불안정애착과 초기부적응 도식의 매개역할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841-851.
- 이지현, 김수영 (2016). 문항묶음: 원리의 이해와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327-353.
- 정재익, 양난미 (2019). 대학생의 불안정 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자비의 순차적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7(2), 23-52.
- 최정문, 정남운 (2020). 아동기 정서적 방임이 불안정 성인애착과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 심리화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4), 2091-2118.
- 최중현, 박중규 (2015). 경계선 성격특성을 가진 비행청소년의 초기 심리도식과 정서 경험의 양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4(3), 667-684.
- 허인아, 이민규 (2017). 성인애착의 불안-회피 차원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0(4), 71-91.
- 홍상환, 김영환 (1998).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259-271.
- 황지선, 안명희 (2015). 불안정 성인애착이 거절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외로움과 수치심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6(1), 1-20.
- Agrawal, H. R., Gunderson, J., Holmes, B. M., & Lyons-Ruth, K. (2004). Attachment studies with borderline patients: A review.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12, 94-104.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Bach, B., & Farrell, J. M. (2018). Schemas and modes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he mistrustful, shameful, angry, impulsive, and unhappy child. *Psychiatry Research*, 259, 323-329.
- Barnow, S., Stopsack, M., Grabe, H. J., Meinke, C., Spitzer, C., Kronmüller, K., & Sieswerda, S. (2009). Interpersonal evaluation bias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7(5), 359-365.
- Bartholomew, L.,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eeney, J. E., Wright, A. G., Stepp, S. D., Hallquist, M. N., Lazarus, S. A., Beeney, J. R., ... & Pilkonis, P. A. (2017). Disorganized attachment and personality functioning in adults: A latent class analysis.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8(3), 206-216.
- Bernstein, D. P., Fink, L., Handelsman, L., &

- Foote, J. (1998).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Assessment of family violence: A handbook for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 Bernstein, D. P., Stein, J. A., Newcomb, M. D., Walker, E., Pogge, D., Ahluvalia, T., ... & Zule, W. (200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brief screening version of the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hild Abuse & Neglect*, 27(2), 169-190.
- Blatt, S. J., & Levy, K. N. (2003). Attachment theory, psychoanalysis, personal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Psychoanalytic Inquiry*, 23(1), 102-150.
- Bollen, K. A., & Stine, R. (1990). Direct and indirect effects: Classical and bootstrap estimates of variability. *Sociological Methodology*, 115-140.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New York: Guilford. 46-76.
- Broadbear, J. H., Dwyer, J., Bugeja, L., & Rao, S. (2020). Coroners' investigations of suicide in Australia: The hidden toll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129, 241-249.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136-162), Newbury Park, CA:SAGE.
- Byrne, B. M. (201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Mplu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2nd ed.). New York, NY: Taylor & Francis Group.
- Cameron, A. Y., Erisman, S., & Palm Reed, K. (2020). The relationship among shame, nonsuicidal self-injury, and suicidal behaviors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sychological Reports*, 123(3), 648-659.
- Clarkin, J. F., Yeomans, F. E., & Kernberg, O. F. (2016). *경계선 인성장애의 정신분석 심리치료*(윤순임 외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6년 출판).
- Cook, D. R. (1988). Measuring shame: The internalized shame scale.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4(2), 197-215.
- Crawford, T. N., Shaver, P. R., Cohen, P., Pilkonis, P. A., Gillath, O., & Kasen, S. (2006). Self-reported attachment, interpersonal aggression, and personality disorder in a prospective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and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0(4), 331-351.
- Critchfield, K. L., Levy, K. N., Clarkin, J. F., & Kernberg, O. F. (2008). The relational context of aggression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Using adult attachment style to predict forms of hostilit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4(1), 67-82.
- Dannlowski, U., Kugel, H., Huber, F., Stuhmann, A., Redlich, R., Grotegerd, D., ... & Suslow, T. (2013). Childhood maltreatment is associated with an automatic negative emotion processing bias in the amygdala. *Human Brain Mapping*, 34(11), 2899-2909.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78(2), 350-365.
- Frias, A., Palma, C., Fariols, N., Gonzalez, L., & Horta, A. (2016). Anxious adult attachment ma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ersonality and Mental Health, 10*(4), 274-284.
- Gabbard, G. O., & Wilkinson, S. M. (2020). 역전 이와 경계선 환자의 치료. (한재현, 양미래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4년에 출판).
- Hallquist, M. N., Hipwell, A. E., & Stepp, S. D. (2015). Poor self-control and harsh punishment in childhood prospectively predict borderline personality symptoms in adolescent girl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4*(3), 549-564.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Henry, C., Mitropoulou, V., New, A. S., Koenigsberg, H. W., Silverman, J., & Siever, L. J. (2001). Affective instability and impulsivity in borderline personality and bipolar II disorder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35*(6), 307-312.
- Holmes, J. (2004). Disorganized attachment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clinical perspective.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6*(2), 181-190.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Hughes, A. E., Crowell, S. E., Uyeji, L., & Coan, J. A. (2012). A developmental neuroscience of borderline pathology: Emotion dysregulation and social baseline theor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0*(1), 21-33.
- Jeremy, Q, Louise L. K., Bennett, C., Gorden, M. S., Saeedi, N., & Melvin, G. A. (2017). Reflective funct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maltreatment and borderline pathology in adolescent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hild Abuse & Neglect, 72*, 215-226.
- Karolinsky, L. (2019). Social anxiety in children: exploring insecure attachment and parental behaviors in the constellation of societal and cultural moderators. *Social Research Reports, 11*(2), 49-60.
- Kenny, D. A. (2014). *Measuring model fit*. from <http://davidakenny.net/cm/fit.htm>.
- Kim, S. H., Baek, M., & Park, S. (2021). Association of parent - child experiences with insecure attachment in adulthood: A systematic review and meta analysis.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13*(1), 58-76.
- Levy, K. N., Meehan, K. B., Weber, M., Reynoso, J., & Clarkin, J. F. (2005). Attachment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Implications for psychotherapy. *Psychopathology, 38*(2), 64-74.
- Linehan, M. M. (1993).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New York: Guilford Press.
- Little, T. D., Rhemtulla, M., Gibson, K., & Schoemann, A. M. (2013). Why the items versus parcels controversy needn't be one. *Psychological Methods, 18*(3), 285-300.

- Lutwak, N., Panish, J., & Ferrari, J. (2003). Shame and guilt: Characterological vs. behavioral self-blame and their relationship to fear of intimac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4), 909-916.
- Matsunaga, M. (2008). Item parceling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primer. *Communication Methods and Measures, 2*(4), 260-293.
- Miller, C. E., Townsend, M. L., Day, N. J., & Grenyer, B. F. (2020). Measuring the shadows: A systematic review of chronic emptiness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LoS One, 15*(7).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33970>
- Mohammadzadeh, A. (2013). The explanation of schizotypal and borderline traits according to attachment dimensions and basic personality traits. *Iranian Journal of Psychiatry & Clinical Psychology, 18*(4), 322-330.
- Moraes, R. R., Correa, M. B., Daneris, Â., Queiroz, A. B., Lopes, J. P., Lima, G. S., ... & Demarco, F. F. (2021). Email vs. Instagram recruitment strategies for online survey research. *Brazilian Dental Journal, 32*, 67-77.
- Morey, L. C. (1991).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Professional Manual*. Florida, US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Muris, P., Meesters, C., Cima, M., Verhagen, M., Brochard, N., Sanders, A., ... & Meesters, V. (2014). Bound to feel bad about oneself: Relations between attachment and the self-conscious emotions of guilt and sham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3*(7), 1278-1288.
- Peng, W., Liu, Z., Liu, Q., Chu, J., Zheng, K., Wang, J., ... & Yi, J. (2021). Insecure attachment and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med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Depression and Anxiety, 38*(1), 28-39.
- Roberts, B. W., Walton, K. E., & Viechtbauer, W. (2006). Patterns of mean-level change in personality traits across the life course: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32*(1), 1-25.
- Rüsch, N., Lieb, K., Göttler, I., Hermann, C., Schramm, E., Richter, H., ... & Bohus, M. (2007). Shame and implicit self-concept in women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4*(3), 500-508.
- Scott, L. N., Levy, K. N., & Pincus, A. L. (2009). Adult attachment, personality traits,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in young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3*(3), 258-280.
- Shaver, P. R., & Mikulincer, M. (2003). The psychodynamics of social judgments: An attachment theory perspective. *Social Judgments: Implicit and Explicit Processes, 85-114*.
- Skodol, A. E., Gunderson, J. G., McGlashan, T. H., Dyck, I. R., Stout, R. L., Bender, D. S., ... & Oldham, J. M. (2002). Functional impairment in patients with schizotypal, borderline, avoidant, or obsessive-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9*(2), 276-283.
- Smith, M., & South, S. (2020). Romantic attachment style and borderline personality pathology: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 review, 75.
- Temes, C. M., Frankenburg, F. R., Fitzmaurice, G. M., & Zanarini, M. C. (2019). Deaths by suicide and other causes among patien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personality - disordered comparison subjects over 24 years of prospective follow-up.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80(1), 30-36.
- Wallin, D. J. (2010). 애착과 심리치료. (김진숙, 이지연, 윤숙경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7년 출판).
- Westen, D., Nakash, O., Thomas, C., & Bradley, R. (2006). Clinical assessment of attachment patterns and personality disorder in adolescents and adul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6), 1065-1085.
- Winsper, C. (2018). The aetiology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BPD): Contemporary theories and putative mechanisms.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21, 105-110.
- Zeigler - Hill, V., & Abraham, J. (2006).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Instability of self - esteem and affect.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5(6), 668-687.

원 고 접 수 일 : 2022. 01. 27

수정원고접수일 : 2022. 04. 01

계 재 결 정 일 : 2022. 05. 03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Trauma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raits in Emerging Adults: The Mediating Effects of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Internalized Shame

Tae-yeon Kim

JeeEun Karin Nam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

Assistant Professo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s of insecure adult attachment (attachment avoidance, attachment anxiety) and internalized sham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trauma (CET)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BPD) traits. 388 Korean participants completed online questionnaires.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Mplus 8.6. Results: Positive correlations existed among all variables. All paths between CET and BPD traits were positively significant, except for the path from attachment avoidance to BPD traits, which was negatively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ET and BPD traits, the mediating effects of attachment anxiety and internalized shame were positively significant, while the mediating effect of attachment avoidance was negatively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ET and BPD traits,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attachment anxiety and internalized shame was positively significant, while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attachment avoidance and internalized shame was negatively significant.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childhood emotional trauma, attachment avoidance, attachment anxiety, internalized shame,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raits